

성심이신 예수님께 / 이해인

겸손과 온유의 성심(聖心)이신 예수님
당신은 항상
저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셨지요?

사랑의 가시에
깊이 찢리신 당신 마음에
깊이 들어 간 저의 기도는
오직 사랑 때문에
피 흘려도 좋은
한 송이 장미로 피어납니다

초록의 황홀함에
취해 있던 6월의 숲에서
어느 순간
제 이름을 부르는
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

저는 죄가 많지만
갈림 없는 첫 마음을
순결한 첫사랑으로
당신께 봉헌하는 오늘

당신이 쏟아 부은
사랑이 넘쳐
제 마음은
온통 초록빛 바다

이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
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



사랑은 끝까지 신뢰 합니다.